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월 22일 (제1185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행동하는 믿음

2023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3시로 옮기고 은사집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첫 주일인 1월 1일, 성전은 은사집회를 선포하기 전보다는 많이 찾지만, 3층 의자는 거의 비어 있었다. 성가대석도 마찬가지였다. 성가대석의 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나는 성가대가 찬양을 한 후에 이렇게 명령했다. “성가대장은 다음 주까지 성가대석을 다 채워라. 못하겠거든 대장직을 내려놔라. 집을 팔아서라도 성가대석을 채워라. 다음 주까지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8일 주일에배 때 일어났다. 성가대장인 김정태 장로는 정말 집을 내놓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며 많은 곳에 협조를 구하여 성가대석을 채운 것이다.

김정태 장로는 말한다. “나는 이미 맛을 본 사람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목사님이 저에게 던지신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사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나는 나에게 그런 장로가 있음에 감사했고, “내가 정말 잘 가르쳤구나.”하고 자찬도 해보았다.

그렇다.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2:13).

잘 생각해보자. 내가 행정목사를 기도원에 보내 ‘이렇게 해라’고 명령했다면, 그것은 행정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총회장인 내 명령이 된다.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마 10:40)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주의 종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언한다. 따라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소망의 열도와 응답은 정비레한다

“소망의 열도와 기도의 응답은 정비레한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눈물에 약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면 꼼짝 못하고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는 목회 초기, 부흥의 급성장세를 이루며 한때 교만하였다가 사지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내 몸을 제어하고, 앞에는 구척장신이 되는 귀신 대장이 나를 죽이려고 저벽저벽 걸어오고 있었습

가며 내 마비되었던 몸이 순간 풀어졌습니다. 어떤 의학이 나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고침을 받았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외집회에 나가면 18번처럼 전하는 간증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간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2023년 새해, 주일 4부예배를 은사집회로 선포하고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70을 넘어 80을 바라보는 내 나이에 오전, 오후예배를

다. 나는 38년 목회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잘 알뿐더러 분명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절박한 심정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보지 마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함께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같이 사막에서 방성대곡하던 그 심정으로, 한나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술취한 여인이라는 편잔까지 들어가며 애끓는 심정을 쏟아냈던 것처럼, 혈루증 걸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찾고 배우면 못 이룰 것이 없다

봉우 이초석 목사

기필코 이루고 말겠단 정신을 가지라

니다. 나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나의 부귀와 명예는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가족도, 친지도, 나의 힘 있는 지인들도, 심지어 내 집안에 의사가 다섯이나 있어도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죽는 힘을 다해 ‘예수’를 불렀습니다. 아니 목소리로 나온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뿔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열마를 시ết말로 웅천지랄하며 몸부림치는데 아주 희미한 소리가 내 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나는 계속해서 온 힘을 다 짜냈습니다. ‘예수’를 부르기 위해서. 점점 내 목소리는 커졌고, 마침내 ‘예! 수!’하며 외치자 갑자기 나를 붙잡고 있던 귀신들과 나에게 다가오던 귀신대장이 떠나

모두 인도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며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 이를 회복시키려면 내가 입에 칼을 물고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표를 정하면, 마음에 결단하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귀는 닫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나는 목회 초기 500명 교회가 깨졌을 때, 그런 심정으로 도전했고, 메인스타디움 집회, 해외의 수많은 집회, 평화통일 기도성회 등등, 모든 영적 전쟁을 앞두고 나는 항구여일하게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돌파해왔습니다

려 열두 해를 고생하던 여인이 마지막 소망을 안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보세요. 엘리사가 그토록 박대하는 스승 엘리야의 만류를 뿌리치고 길갈, 벳엘, 여리고, 요단까지 따라가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더니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려보세요. 내가 단언컨대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소망의 열도는 기도의 응답에 정비레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나라를 침노하느냐, 그 열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졌다며 이스라엘의 축복을 내리신 것처럼, 꼼짝 못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욥3:4~10)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도 바꾼다

“은택아, 내가 KGB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 기도 때문이기도 했지만, 너랑 초현이가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기에 가능했단다.”

지난주일 4부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방 송실에서 한은택 목사에게 한 말입니다. 지난 2007년 키르기스스탄에서, 하루는 2명의 KGB요원이 조용히 숙소로 찾아와 나와 슬라바 목사를 연행해갔습니다. 집회 광고지에 ‘병을 고친다’고 적힌 문구가 문제였습니다. 의료면허도 없는 자가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건데, 실상은 회교국가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대형 기독교 집회가 연일 진행되니 불편했던 겁니다. 아무리 구소련시절 이야기라지만 ‘KGB’ 하면 울던 아이도 똑 그칠 정도로 무서운 이름 아닙니까? 저와 슬라바 목사가 갇힌 곳은 사방이 회색 콘크리트요, 희미한 전등 하나만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으니 두려운 것은 없었지만, 두고 온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무사히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디 저와 슬라바 목사뿐이었겠습니까? 슬라바 목사와 제가 KGB 요원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으니 남은 선교일행들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심정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였고, 저는 재판을 받고 추방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절박하다’는 것은 너무 위급해서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마치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 지도자인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죽일 것 같은 기세로 덤비며 원망까지 하니 말입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출14:15)라고 하시고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들은 수장시키셨습니다.

절박(迫切)한 기도, 간절기가 끊어질 정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십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참에 잔악무도한 니느웨 사람들이 망했으면 했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어 회개시키셨고,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온 요나는 하는 수 없이 니느웨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소리에 니느웨가 왕부터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재에 앉아 기도했고, 심지어는 가축조차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욥3:8), 이는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나 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욥3:10).

한나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기에 무자(無子)했습니다(삼상1:6).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사 한나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것도 세상에 둘도 없는 근사하고 의로운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바로 한나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같은 남편을 섬기는 브닌나의 조롱에 격동하여 통곡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일은 또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왕하20:1)고 말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니다. 그런데 이 창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히스기야는 그 즉시 면벽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나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양망하나이다”(사38:14)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곧 죽는다는데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직 궁정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왕하20:5).

하나님은 아합의 일도 돌이키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합 왕은 둘째 아합이라 해서 러워 할

악독한 왕입니다. 그의 죄는 우상숭배와 더불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극에 달했는데요. 급기야 엘리야가 아합에게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자 그 악한 아합이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이 아합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 아들 대에 내리신다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왕상21:29).

여러분, 악한 니느웨 사람도, 아합도 절박한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요? 이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아직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한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도 부림질이 찾아옵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 문을 열기 위해 가랑이 사이로 머리가 들어갈 만큼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히고 목마름이 해소될 것

이고, 딸을 고쳐달라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 치료의 광선이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듯 기도도 끓는 시점, 곧 임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이란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하신 그 지점을 말합니다. 항아리의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고, 그 포도주로 인하여 잔치집이 흥에 겹들, 기도의 임계점이 넘어야 우리 인생에 희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임계점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물이 아구까지 차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해외집회에 가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스스로 저를 사지로 몰아넣는 선포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까? 한은택 목사가 교회 신문에든 듯이 호텔 방바닥에 두 장 겹쳐 놓은 수건에 무릎 자국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에 전무합니다. 침대에 들어가지도 않는 날이 많습니다. 가짜 목사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증명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을 하고, 암이 쏠아져 나가는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기도가 낳은 결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믿음에도 커트라인이 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매사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배우면 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말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는 심정으로 임해보세요. 하나님만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도 우리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놈은 뭘 때까지 할 놈이야.’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저준 것처럼 만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하지 않으면 나 망해요.”, “하나님, 의사가 못 고친대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은 종목 고르기2

주식을 채권의 대체투자 상품으로 생각해 보시지요. 주식은 매년 투자수익이 전년 보다 늘어날 수도, 줄어든 수도 있어 매우 가변적이며 역동적입니다.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연 수익률이 알려져 있고 만기에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주식의 투자수익률은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주식의 이익수익률(earnings yield)이 인플레이션을 앞서는 종목을 골라야 한다. 둘째, 이익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가격이 책정된 국제수익률을 앞서는 종목을 골라야 한다. 셋째로는 이익수익률이 장기간에 걸쳐 상승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세 번째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투자자로서는 투자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장기간에 걸쳐 이익수익률이 상승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수익률도 상승하지요. 궁극적으로 주가는 이익수익률의 상승을 따라갈 것입니다. 연간 이익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을 앞설 가능성을 가진 기업은 많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한, 주식은 채권의 고정된 이표 이자율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투자자가 이 주식을 수년 동안 보유하면 분명히 채권을 앞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성장률뿐 아니라 투자자가 현재

주가로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버핏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보면, 그가 가장 중시해온 것은 채권 수익률에 앞서서 꾸준히 이익수익률이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내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유해온 주요 종목들은 -코카콜라, 질레트 등- 채권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이익수익률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는 주식투자자 채권 수익률을 능가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때만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제수익률이 상승하면 주식의 이익수익률도 그와 같이 높게 잡아서 투자해야 하죠. 기업의 이익이 매년 동일하다면, 주식의 이익수익률이 채권 수익률과 똑같아지려면 주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수익률이 떨어지면 이와 연관해서 주가가 상승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다 준비해 두었으니 찾아 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찾겠다는 일념이 있어야 보이고, 귀가 열려있는 자에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미래가치가 있는 사람, 땅, 집, 기업을 찾아 투자해야 합니다. 값과 가치는 다르지요. 값은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가치 있게 변화 성장하는 자녀, 기업 등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목사님은 늘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충격은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어느 날 담당하고 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으니 공부에 의욕이 없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지금부터 내 의사 남동생의 이야기를 들려줄게.”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노는 게 가장 행복했던 동생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치른 첫 번째 받아쓰기 시험에서, 맞춤법을 몽땅 틀렸을 만큼 처음부터 우등생이 아니었어. 중학교 2학년이던 그해 6월,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신 뒤에 의사가 될 것을 결심하게 된단다. 문득 하늘나라에 계시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동생은 결심한 그 날로부터 문제집을 하루에 한 권씩 풀어가며 열공하더니 중2 말에 전교 4등을 하였고, 고1 때부터는 전교 1등을 하기 시작했지. 그럼에도 동생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수학 기초가 부족한 거였어. 수학이 발목을 잡아 결국 열망했던 의대에 진학할 수 없게 되었던단다.”

“동생이 의사가 되길 포기했을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으니 지금 의사가 되셨겠죠!”, “맞아! 동생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에 입학해서 3년간 두 과목만 남겨두고 전체 과목을 이수한 뒤 4학년 때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MEET)공부에 매진했단다. 그 결과,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어!” 공부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스스로 방학을 포기하고 계절학기까지 수강해가며 미리 학점을 이수했던 동생. 고비가 올 때마다 ‘포기는 자살 행위다.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시험을 준비했던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은 ‘꿈을 위해 기도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노라’ 약속하였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소나무도 살기 위해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물며 환경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미래는 포기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봅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김진실 사모

:: 겨자씨만 한 믿음 ::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소와 관련된 속담은 2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소와 생활이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고, 농경사회에서 소는 사람보다 힘이 월등히 좋아 사람보다 밭을 잘 갈고 방아를 돌려서 곡식을 찧는 등 훌륭한 일꾼이기 때문이다. 여름에 소가 탈진하면 귀해서 사람도 먹기 힘든 산낙지를 먹여서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애지중지하였다.

농부들은 소에게 꼴을 먹이거나 겨울에는 여물을 쭉어 구유에 붓는다. 소도 매일 먹어야 하기에 구유는 금방 더러워져 자주 청소해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구유가 더러운 게 싫고 청소하는 것도 싫다고 해서 소를 처분하는 농부는 없다. 소를 통해 얻는 이익이 많으므로 그 정도를 당연히 치려야 할 대가로 여긴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

만 얻는 것도 없다.

삶에서 더러워진 외양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 직장 상사 또는 직원과의 갈등, 자식들 또는 부모님들, 부부간의 갈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런 것들은 때때로 우리를 괴롭힌다. 괴롭고 힘든 현실에 불평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고 고민하는 그 이면에 놓인 것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사나 직원과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닐 직장이 있다는 뜻이고, 자식이나 부모님 문제 때문에 힘들다면 가족이 있다는 것이고, 값을 빚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언가를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더러운 외양간에 불평하지 말고, 때사에 감사하는 2023년이 되기를 기도한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잠14:4).

김성일 집사



:: 생명의 말씀 ::

경험되는 하나님

예수중심제자신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조직신학이란 성경을 큰 주제들로 분류하여 체계를 잡아주는 학문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 중에 ‘신(神) 존재 증명’이라는 유명한 철학적 논쟁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논쟁을 생략하고 간단히 넘어갔다. ‘나는 있다’(창3:14)고 이미 선포하셨는데, 그 존재 자체의 유무를 논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신학을 하지 않을 거면 그 신학은 버려야 한다고 신학생들에게 주장하고 있다. 철학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을 때려치우는 힘은 있으나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지식인으로만 남게 만든다. 철학이라는 인간의 생각이, 신학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정되어야 하고, 결국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향유함으로써 완성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철학과 많은 종교들은 멀리 떨어져 계신 신을 ‘지식적으로 알게’ 만든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격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종교이다. 바로 내 안에 내재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케 하시는 종교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충만했다. 작고 소소한 일부터 큰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일이 없었다. 그분의 분명한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겉어와 보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교단공동체 등등 여러 상황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었다.

만남에도 깊이가 있다.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공감대가 깊어지다 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응답의 깊이도 깊어졌다. 지난해도 그랬듯이 새해에도 여전히 ‘나는 있다’고, ‘나를 경험하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

에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과 신뢰로 반응하려 한다. ‘한번 걸은 아이는 다시는 기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처음에 바닥을 기는 것은 과정이지만, 걷게 된 후부터 다시는 기어다녔던 시절을 향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한 번 깊이 경험해본 체험은 점점 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 ‘네 간증 좀 듣고 싶다!’고 하셨던 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새해를 기대해본다.

송지화 목사

:: 간증 ::

:: 신앙에세이 ::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일본 군마현에 사는 일본인 성도입니다. 일본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극히 적고 교회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본 땅에 사는 우리 가족들이 6년 전에 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제가 한국을 오가게 되었고, 그리고 딸도 한국으로 건너가 가족끼리 서울 예수중심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복의 간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한국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던 기적적인 일에 대하여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86세인데, 40년 전부터 심한 류마티스를 앓아 통증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대화 가운데 예수중심교회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어느덧 어머니께서도 유튜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어머니의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4시간의 기도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온종일 예수중심교회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지냅니다. 한국어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웃기도 합니다. 옆에서 보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도 계속 같은 나날을 보냈기 때문에 병원에서조차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는 3시간 기도를 하고 어머니의 하루가 끝납니다. 지난 6년 동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본인도 수술과 오랜 입원 생활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 때에 항상 어머니를 구한 것은 예수님의 치유였습니다. 기도 속에 마음이 누그러지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니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장시간 외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몸 상태였고, 앉는 것도 힘들고 같은 자세로 있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매주 세 곳의 병원에 정기 통원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바람이 점점 크고 강렬해졌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에 따라 우리 가족들과 전도를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들과 함께 어머니의 한국행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세 개 병원 각각의 주치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류마티스 담당의사, 심장 담당의사, 그리고 대장외과 담당의사를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의사의 허가는 나오지 않고 심장부에서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이라는 새로운 이상이 발견되었고, 탈장의 재발증세도 발견되었습니다. 류마티스 주치의에게서는 장시간 같은 자세에서 오는 신체에 대한 부담으로 뼈가 산산조각나거나 비행기 착륙 시 충격으로 인해 목에서 아래의 하체 부전이 예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무사히 안전하게 운반해주시니 걱정 없다고 하시며, 비행기가 나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운반해주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아무 걱정도 없으니 안심하고 한국에 간다’고 의사 선생님께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한국행을 실현한 것입니다. 한국에 가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였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무렵 일본에서는 한국 통일교회의 나쁜 일들이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가다가 죽더라도 가야겠다는 어머니의 결단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에 처음 타보는 첫 기차, 첫 비행기, 첫 한국 여행, 첫 대면예배,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목사님들과의 대면,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모든 것을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며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하여 힘든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기만 하다고 고백하십니다. 매일 기도하며 매일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몸으로 이 나이에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멋진 삶이라고 일본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무력하신 어머니의 일생이 하나님의 증표가 되고 작은 빛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고, 그 후에는 장 수술도 해야 합니다. 어제 검사에서는 뇌의 혈관 협착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신체 개조 계획을 시작하셨다며 기쁨 속에 계십니다. 더 몸이 건강해져서 다시 한국 예배에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예배에 가는 것이 다음 꿈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기쁨 속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지마 쿠미오 (IJIMA KUMIYO)

살아계신 하나님

오래 전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초석 목사님께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마을금고에 천만 원을 예금했는데, 글썽 그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어젯밤에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갔대요. 그

돈에 어떤 돈인데...” 이 말을 듣고 계시던 목사님은 “아니, 집사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걱정입니까? 기도하세요.”라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날마다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비록 나쁜 짓을 했지

만, 아주머니 돈만은 폐먹을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꿈에 아주머니가 나타나 돈 내놓으라고 해서 살 수가 있어야죠.” 그 집사님은 목사님께 십일조를 가지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놀아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인 첫째 아들이 내게 말한다.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요.” 다섯 살 둘째 아들도 말한다. “아빠, 놀아주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놀아주고 싶고 같이 놀고 싶지만, 회사 일은 밤낮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집안일도 끝이 없다. 보통 아빠들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엄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에, 아이들과의 시간은 양보다는 질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한다. 손은 아이에게, 눈은 스마트폰에 두는 것이 아닌, 30분이라도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퀄리티(Quality) 있는 시간을 보내야 아이도 만족한다고 한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은 똑같은 것을. 장난감이나 게임이 아닌, 함께 식사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나도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은 단지 서로에게 눈을 맞추고, 집중하고 경청하며,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평범한 행복이 그리 쉽지는 않다. 여러 삶의 과도가 있기도 하고, 사랑이란 이름의 잔소리로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 관계적인 갈등 요소가 있어서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중 가장 기뻐던 때는 아무 다른 생각 없이 단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껏 찬양하던 때였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오랜만에 참석했던 찬양집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컥 눈물만 났다.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옆으로 치우고,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고, 나도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 퀄리티 있는 시간이 참 행복했었다. “아빠, 같이 놀아주세요.” 그 말에 오늘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려 한다.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 같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17:5).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friendly

